

KMI 동향분석

VOL.221

2026년 3월

발간년월 2026년 3월(통권 제221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조정희
감 수 마창모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홈페이지 www.kmi.re.kr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집필진의 견해입니다.

동북아 수산물 교역 여건 변화와 수산물 무역 시장의 구조적 함의

한기욱 해외시장분석센터 센터장
(hankiuk@kmi.re.kr/051-797-4902)
황산산 해외시장분석센터 전문연구원
(shan0202@kmi.re.kr/051-797-4590)
원은송 해외시장분석센터 전문연구원
(etz456@kmi.re.kr/051-797-4585)
신진원 해외시장분석센터 전문연구원
(shinjwt@kmi.re.kr/051-797-4527)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은 2023년 8월 2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2020~2022년 평균 약 5억 달러에 달하던 일본의 對중국 수산물 수출은 2024년 8백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후 양국 간 협상을 통해 2025년 6월 조건부 수입 재개가 발표되었으나, 같은 해 11월 외교적 여건 변화 속에서 해당 조치가 다시 철회되었다. 수입 중단-조건부 재개-재중단이 반복된 사례는 동북아 수산물 교역이 외교·환경 이슈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며, 단기간 내에도 교역 구조가 크게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을 소비재로 수입하는 동시에 가공·중계시장으로서 재수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금수 조치 이후 일본산 의존도가 높았던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선 다변화가 나타났으며, 교역 재개 발표 이후에도 시설 등록, 검사·검역, 증명서 발급 등 행정·비관세 절차로 인해 실제 교역 정상화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관세 조치뿐 아니라 비관세 요인 또한 교역 규모와 정상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중국과의 협상을 병행하면서 소비재 수출시장(미국·대만) 확대와 대체 가공기지(동남아) 확보 등을 통해 수출 구조 다변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 수산물 시장이 상호 대체성과 공급 연계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정 국가의 통상 조치가 역내 교역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일본산과 경쟁하던 참치·굴·해삼 등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대체 수출 증가가 일부 나타났으나, 국내 공급 여건과 중국의 경기·소비 둔화 등으로 확대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다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년 1월 체결된 한·중 위생 협정은 향후 국내산

수산물의 중국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입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본의 對중국 수출 제한으로 발생한 물량이 제3국으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방어의 국내 수입 금액은 2.7백만 달러에서 3.9백만 달러로 증가(44.4%)하였으며, kg당 수입 가격은 12.2달러에서 9.3달러로 하락(24.2%)하였다. 이는 일부 품목에서 역내 통상 조치가 국내 수급과 가격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북아 수산물 교역은 외교·환경 이슈와 행정적 조치에 따라 단기적 변동성을 보이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역내 통상 환경 변화와 품목별 수급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교역 구조와 파급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상 환경 변화가 대체 수요 확대나 수입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출과 수입 양 측면의 시장 변화를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금수 조치 시행 경과

외교·환경 이슈에 따른 수입 제한 조치 변동

■ 2023년 8월, 중국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¹⁾

- 2011년 3월 규모 9.0의 대지진 발생에 따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중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식품의 수입을 제한해 왔으며,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 추가 증명서 제출 등 강화된 수입 규제를 시행함
- 이후 2023년 8월 24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중국은 기존의 지역 단위 제한 조치를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로 확대하여 수입을 전면 금지함. 홍콩과 마카오는 원전 오염수 방류 인근 10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차단함

■ 2025년 7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 완화 이후에도 일본의 수출 지연 지속²⁾³⁾⁴⁾

- 일본은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출 정상화를 위해 2024년 9월부터 중국과 금수 조치 완화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 그 결과, 2025년 7월부터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조건부로 완화하고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함
- 수입 재개 대상은 후쿠시마 등 10개 현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며, 일본측은 수출 시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중국의 오염수 샘플 채취분석 참여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함
- 그러나 금수 조치 시행으로 기존에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던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이 일괄 취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설 재등록, 증명서 발급 협의 등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서 일본의 정상 수출도 지연되었음

〈표 1〉 중일 수산물 수입 재개 관련 합의 사항

일본	중국
1. 수산물 수출 시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첨부 * 후쿠시마 인근 10개 현 금수 조치 유지	1. 일본의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재개, 수입 통관 과정에서 샘플 채취 후 검사·검역 진행
2. 방류 상황 및 계획, 오염수 데이터 및 리스크 평가 결과 등 정기 공유	2.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 오염수 샘플 채취·분석 지속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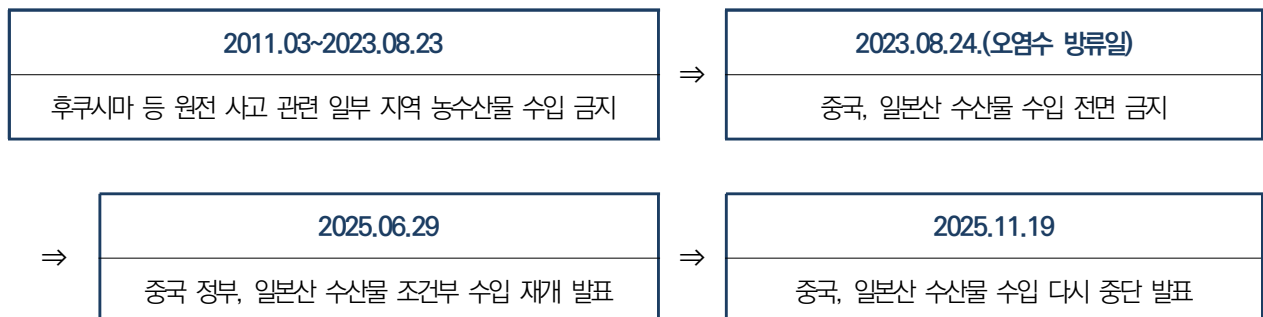
자료: news.foodmate.net, customs 등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1) 한겨레, 중국, 일본 수산물 전부 수입 금지...10개 지역→전역(2023.8.24),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1105642.html> (검색일: 2025.12.15)
- 2) customs, 海关总署关于有条件恢复日本部分地区水产品进口的公告(2025.6.29), <http://hangzhou.customs.gov.cn/customs/302249/zfxgk/zfxgkml34/6606016/index.html> (검색일: 2025.12.15)
- 3) jckspj.customs,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名单, <http://jckspj.customs.gov.cn/spj/xxfw39/jkspjwscqyzcmd/4650504/index.html> (검색일: 2025.12.15)
- 4) news.foodmate, 日本冷冻扇贝首度重返中国市场, 贸易“试探性解冻”(2025.11.24), <https://news.foodmate.net/2025/11/729743.html> (검색일: 2025.12.15)

■ 중국, 정치 이슈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다시 중단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중국 내에서는 일본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적 대응이 검토되기 시작함
-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조치에 이어, 중국은 2025년 11월 19일 원전 오염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를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함⁵⁾
- 이에 수입 재개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對중국 수산물 수출은 사실상 2023년 9월부터 지금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었음

〈그림 1〉 중국의 對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변동 경과



자료: 한겨레, news.foodmate.net, 뉴시스 등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5) 뉴시스, "중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172개 대기업 영향"(2025.11.24), https://www.news1.com/view/NISX20251124_0003414243(검색일: 2025.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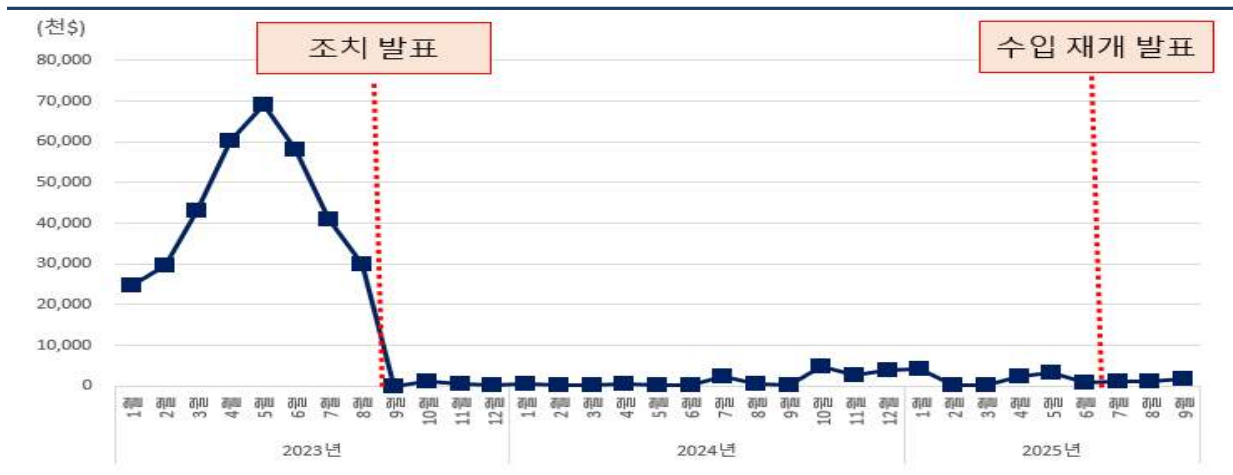
2. 금수 조치 영향 분석

금수 조치에 따른 중국 수입시장 영향

■ 중국, 금수 조치에 따른 수입시장 변화

-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주요 수산물인 가리비, 해삼, 참치, 해파리 등으로, 금수 조치가 발표된 직후인 2023년 9월부터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전면 중단함
- 중국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일본산 수산물의 '정상 수입 재개'를 공식 발표하였으나, 일본 측 생산·가공시설 등록 지연과 증명서 발급 절차 등 행정적 요인으로 인해 실제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림 2〉 중국의 對일본 수산물 수입 추이



주: 국가별 통계 집계 방식 및 기준의 차이로 중국과 일본의 수산물 수출입 통계에는 차이가 있음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원자료(검색일: 2025.12.16.) KMI 재가공

■ 중국, 금수 조치 기간 수산물 수입의 전반적 감소

- 2023년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국경을 개방하였으나, 장기간 봉쇄에 따른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산물 가공 및 소비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됨
- 수입 금지 조치 시행 전후('22.09~'23.08 vs '23.09~'24.08)를 비교한 결과, 전체 수산물 수입은 250억 달러에서 226억 달러로 감소하여 9.5% 축소된 것으로 확인됨.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가 전반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캐나다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주요 상위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부분 감소하여,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전반적 수입 위축 양상이 나타남

- 한편, 일본은 금수 조치 이전 중국의 제12위 수산물 수입 대상국으로 5억 6천만 달러(2.2%)를 차지하였으나, 금수 조치 이후 7백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98.7%)함. 이는 전체 수입 감소(-9.5%)와는 구별되는, 정책 요인에 따른 급격한 조정에 해당됨

〈표 2〉 중국의 국가별 수산물 수입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조치 전('22.09~'23.08)		조치 후('23.09~'24.08)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25,001	100.0	22,639	100.0	-9.5
1 에콰도르	3,979	15.9	3,188	14.1	-19.9
2 러시아	3,177	12.7	3,022	13.3	-4.9
3 페루	1,845	7.4	1,376	6.1	-25.4
4 인도	1,713	6.9	1,672	7.4	-2.4
5 베트남	1,518	6.1	1,252	5.5	-17.5
6 미국	1,424	5.7	1,397	6.2	-1.9
7 캐나다	1,353	5.4	1,372	6.1	1.5
8 인도네시아	1,119	4.5	1,190	5.3	6.4
9 노르웨이	1,024	4.1	1,004	4.4	-1.9
10 칠레	852	3.4	845	3.7	-0.7
11 태국	729	2.9	691	3.1	-5.2
12 일본	558	2.2	7	0.0	-98.7

주: 국가별 통계 집계 방식 및 기준의 차이로 중국과 일본의 수산물 수출입 통계에는 차이가 있음

자료: Global Trade Atlas 원자료(2025.12.16. 검색) KMI 재가공

■ 중국, 금수 조치 이후 일본 의존 품목 중심 수입 구조 재편

- 일본이 중국 전체 수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로 높지 않았으나, 가리비·성게·해삼·참치 등 일부 품목에서는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음. 이에 따라 금수 조치 이후 전체 시장보다는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 구조 재편이 나타남

- 가리비와 성게의 일본 의존도는 각각 98.9%, 86.4%에 달하였으며, 금수 조치 이후 해당 품목의 수입이 급감함.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로부터의 대체 수입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캐나다산 가리비는 140만 달러에서 401만 달러로, 성게는 88만 달러에서 145만 달러로 증가함

- 참치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유통용 수요 확대가 지속되면서, 금수 조치 이후 수입액이 50% 증가한 185백만 달러를 기록함

* 주요 수입국은 미크로네시아(64백만 달러, +160.8%), 한국(55백만 달러, +151.2%), 스페인(23백만 달러, +274.1%) 등으로, 일본산 대체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짐

- 해삼의 전체 수입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금수 조치 이후 한국산 해삼의 생산·수입 시즌(5~9월)에 수입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 2023년 5~9월 중국의 한국산 해삼 수입액은 1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함

- 반면 새우(에콰도르·태국), 연어(노르웨이·칠레), 대구·명태·게(러시아) 등은 기존 수입선이 분산되어 있거나 일본 의존도가 낮은 품목으로, 금수 조치에 따른 수입 구조 변화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표 3〉 중국의 주요 수산물 품목의 수입국 구성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조치 전('22.09~'23.08) 수입			조치 후('23.09~'24.08) 수입		
	금액(비중)		수입국(비중)	금액(비중)		수입국(비중)
전체	25,001	(100.0)	에콰도르(15.9), 러시아(12.7), 페루(7.4)	22,639	(100.0)	에콰도르(15.9), 러시아(13.3), 인도(7.4)
가리비	299	(1.2)	일본(98.9), 캐나다(0.5)	6	(0.03)	캐나다(62.6), 인도네시아(11.5), 프랑스(7.8)
해삼	180	(0.7)	일본(23.2), 캐나다(18.7), 멕시코(14.0)	117	(0.5)	캐나다(27.9), 말레이시아(15.9), 한국(10.8)
참치	123	(0.5)	일본(28.7), 미크로네시아(19.8), 한국(17.8)	185	(0.8)	미크로네시아(34.9), 한국(29.3), 스페인(12.3)
연어	1,666	(6.7)	노르웨이(31.5), 칠레(22.0), 미국(12.0)	1,423	(6.3)	노르웨이(35.0), 칠레(21.0), 미국(11.3)
새우	7,457	(29.8)	에콰도르(52.6), 인도(11.1), 태국(4.9)	5,868	(25.9)	에콰도르(51.1), 인도(13.6), 태국(4.7)
대구	776	(3.1)	러시아(63.3), 미국(12.0), 노르웨이(13.4)	588	(2.6)	러시아(61.4), 미국(17.7), 노르웨이(13.9)
명태	871	(3.5)	러시아(89.8), 미국(8.7), 캐나다(0.1)	664	(2.9)	러시아(87.5), 미국(12.1), 캐나다(0.4)
해파리	52	(0.2)	멕시코(33.2), 일본(17.6), 인도네시아(14.3)	42	(0.2)	멕시코(29.0), 인도네시아(27.7), 태국(16.8)
성게	10	(0.04)	일본(86.4), 캐나다(8.9)	2	(0.01)	캐나다(73.7), 러시아(15.6), 미국(6.7)
계	1,530	(6.1)	러시아(56.9), 캐나다(10.9), 미국(4.7)	1,748	(7.7)	러시아(58.0), 캐나다(10.4), 미국(3.7)

주: 1. '금액(비중)'은 전체 수입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2. 국가별 통계 집계 방식 및 기준의 차이로 중국과 일본의 수산물 수출입 통계에는 차이가 있음

자료: Global Trade Atlas 원자료(검색일: 2025.12.16.) KMI 재가공

금수 조치에 따른 일본 수출시장 영향

■ 일본, 중국·홍콩 수출 감소에 따른 전체 수출 위축

- 금수 조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일본의 수산물 수출은 조치 이전 대비 27.6% 감소함. 이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입 제한 조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임
- 수입 금지 조치 이전 일본의 對중국 수산물 수출액은 5.9억 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임. 조치 시행 이후 수출액은 800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98.7%)하였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4%로 축소됨
- 홍콩의 경우 원전 오염수 방류 인근 10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對홍콩 수출이 26.3% 감소함. 중국과 홍콩은 일본의 제1·2위 수출 대상국으로, 이들 시장의 위축이 전체 수출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침
- 반면 미국(7.2%), 태국(0.3%), 베트남(22.3%) 등 일부 국가는 수출 증가세를 보임. 이는 중국·홍콩으로의 수출이 제한된 품목을 중심으로 대체 수출이 이루어진 결과임

〈표 4〉 일본의 국가별 수산물 수출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조치 전('22.09~'23.08)		조치 후('23.09~'24.08)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25,001	100.0	1,893	100.0	-27.6
1 중국	594	22.7	8	0.4	-98.7
2 홍콩	439	16.8	324	17.1	-26.3
3 미국	386	14.8	414	21.9	7.2
4 대만	251	9.6	226	12.0	-9.8
5 한국	181	6.9	156	8.3	-13.4
6 태국	170	6.5	171	9.0	0.3
7 베트남	160	6.1	196	10.3	22.3
8 싱가포르	69	2.6	56	2.9	-19.4
9 말레이시아	38	1.5	37	2.0	-3.2
10 칠레	34	1.3	32	1.7	-6.3

주: 국가별 통계 집계 방식 및 기준의 차이로 중국과 일본의 수산물 수출입 통계에는 차이가 있음

자료: Global Trade Atlas 원자료(검색일: 2025.12.16.) KMI 재가공

■ 일본, 중국 중심 수출 구조와 품목 집중도

- 일본의 對중국 수산물 수출은 가리비·해삼·참치·해파리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특히 가리비는 2022년 기준 對중국 수출액의 57.2%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임
- 금수 조치 이후 관상어, 소금 등 일부 품목의 수출 실적은 존재하나, 해당 품목은 중국 통계상 수산물로 분류되지 않아 금수 조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제한적임
- 이는 일본의 對중국 수출 구조가 특정 품목에 집중된 형태였으며, 금수 조치가 구조적 충격으로 작용하였음을 나타냄

〈표 5〉 일본의 對중국 수산물 수출 품목 구조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9월 누적)		
품목	수출액	비중	품목	수출액	비중	품목	수출액	비중	품목	수출액	비중
전체	638	100.0	전체	395	100.0	전체	8	100.0	전체	12	100.0
가리비	365	57.2	가리비	201	51.0	관상어	2	24.0	관상어	8	62.0
해삼	74	11.5	해삼	57	14.3	소금	1	17.4	소금	1	10.6
참치	25	3.9	참치	20	5.0	정어리	1	7.6	어류 유지	0.2	1.9
해파리	18	2.8	빙어	12	3.1	어류 유지	0	2.0	해삼	0.2	1.4
명태	15	2.4	방어	11	2.8	고등어	0	1.1	뱀장어	0.1	0.7
연어	14	2.1	대구	10	2.5	기타	3.7	47.9	기타	2.9	36.9
빙어	12	1.9	연어	10	2.5						
성게	9	1.5	해파리	8	2.0						
대구	5	0.8	명태	6	1.6						
방어	5	0.8	성게	5	1.3						
기타	95	14.9	기타	55	13.9						

주: 국가별 통계 집계 방식 및 기준의 차이로 중국과 일본의 수산물 수출입 통계에는 차이가 있음

자료: Global Trade Atlas 원자료(검색일: 2025.12.16.) KMI 재가공

■ 일본 수산업계, 중국 중심 수출·가공 구조의 조정

- 금수 조치 이전 일본 수산물은 ‘일본 생산 → 중국 가공 → 미국 소비’와 같은 가치사슬을 통해 유통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음. 특히 가리비는 중국이 패각 제거 등 노동집약적 가공 공정을 담당하는 핵심 중간 가공기지로 기능해 왔음⁶⁾

6) 河原昌一郎, 高橋祐一郎 & 末永芳美(2019), ホタテガイの中国向け輸出拡大と国内産地への影響等に関する考察, 農林水...産政策研究(31), pp. 31-50.; OneMIZUHO(2024), 令和5年度委託事業「保水加工ホタテガイの米国直接輸出に係る緊急実態調査」成果報告書, pp. 1-67.

- 중국 내수 소비시장에 공급되던 해삼·성게·참치 등은 금수 조치 이후 미국·대만 등으로 수출 시장을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가공용 원료 수산물은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으로 가공 거점을 이전하려는 시도가 진행됨
-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로 기존의 對중국 수출 및 가공 구조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일본 수산업계는 수출 전략 전반에 대한 조정에 착수함. 일본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협력하여 규제 완화를 위한 외교 협상을 병행하는 한편,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대상국 전환과 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진함⁷⁾
- 중국 내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북미·유럽 등을 중심으로 판촉 활동이 강화되었으며,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과 일-EU 간 의견교환회 개최 등도 추진됨. 이는 중국 중심 수출 구조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중장기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됨
- 원료 가공용 수산물의 경우 일본 내 자체 가공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으로 가공 거점을 이전하여 대체 가공지역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됨. 금수 조치 초기에는 멕시코 소재 합작회사를 활용한 우회 수출 방식도 검토되었으나,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해당 방안은 철회되었으며 멕시코 경유 수출도 중단됨⁸⁾

〈표 6〉 일본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대상국 구조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조치 전('22.09~'23.08) 수입			조치 후('23.09~'24.08) 수입		
	금액(비중)	수출국(비중)		금액(비중)	수출국(비중)	
전체	2,614 (100.0)	중국(22.7), 홍콩(16.8), 미국(14.8)		1,893 (100.0)	미국(21.9), 홍콩(17.1), 대만(12.0)	
가리비	769 (29.4)	중국(41.2), 홍콩(18.2), 대만(12.4)		484 (25.6)	홍콩(22.9), 미국(21.3), 대만(18.6)	
방어	232 (8.9)	미국(73.4), 홍콩(5.8), 중국(5.5)		174 (9.2)	미국(80.4), 홍콩(4.8), 태국(2.8)	
해삼	168 (6.4)	중국(48.4), 홍콩(43.3), 대만(6.1)		77 (4.1)	홍콩(81.3), 대만(10.6), 한국(2.3)	
참치	125 (4.8)	태국(32.0), 중국(23.1), 베트남(14.0)		96 (5.1)	태국(41.2), 베트남(16.4), 필리핀(7.3)	
성게	71 (2.7)	홍콩(25.3), 미국(22.8), 중국(11.3)		53 (2.8)	미국(40.5), 홍콩(16.9), 대만(13.7)	
연어	64 (2.4)	베트남(43.8), 중국(31.7), 태국(18.5)		34 (1.8)	베트남(57.4), 태국(33.4), 대만(3.1)	
빙어	56 (2.1)	미국(30.1), 중국(27.0), 홍콩(16.7)		36 (1.9)	미국(53.1), 대만(16.9), 홍콩(13.7)	
명태	17 (0.7)	중국(54.9), 한국(27.5), 나이지리아(8.2)		7 (0.3)	한국(49.9), 베트남(26.5), 나이지리아(18.9)	
대구	14 (0.5)	중국(80.0), 베트남(16.2), 인도네시아(0.5)		4 (0.2)	베트남(47.8), 인도네시아(42.4), 태국(4.2)	
해파리	12 (0.5)	중국(89.5), 한국(3.2), 미국(2.6)		3 (0.1)	말레이시아(59.1), 한국(17.3), 미국(9.0)	

주: 1. '금액(비중)'은 전체 수입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2. 국가별 통계 집계 방식 및 기준의 차이로 중국과 일본의 수산물 수출입 통계에는 차이가 있음

자료: Global Trade Atlas 원자료 KMI(검색일: 2025.12.16.) 재가공

7) 農林水産物(2025), 農林水産物・食品の輸出拡大実行戦略, pp. 4-10; 農林水産物(2025), 輸出拡大等による「海外から稼ぐ力」の強化に向けた施策の展開方向, p. 3.

8) Jiji.com, 日本産ホタテ、供給網進まず トランプ関税、対米販路阻む—メキシコで加工(2025.8.19), <https://www.jiji.com/jc/article?k=2025081800496&g=int>(검색일: 2025.12.15.)

금수 조치에 따른 한국 시장 영향

■ 한국, 참치·해삼·굴을 중심으로 對중국 대체 수출 일시적 증가

- 일본의 對중국 수산물 수출은 가리비·해삼·참치 등을 중심으로 연간 약 4.9억 달러 규모였으며, 같은 기간 한국은 김·참치 등을 중심으로 연간 약 6.9억 달러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음('20~'22년 평균)
- 일본산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이 금수 조치로 제한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일본산과 경합 관계에 있던 한국산 참치·해삼·굴을 중심으로 대체 수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함
- 참치는 중국 내 횡감용 대체 수요가 발생하면서 수출이 확대되었으며, 굴은 요리용 냉동굴, 해삼은 건해삼 가공 원료로 활용되는 자숙해삼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나타남
- 다만 이러한 대체 수출 증가는 국내 원료 공급 제약과 중국 경기 둔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단기간에 그친 것으로 판단됨. 2024년 이후 중국 내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참치·해삼·굴의 對중국 수출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됨

〈표 7〉 한·일 對중국 수산물 수출의 경합 품목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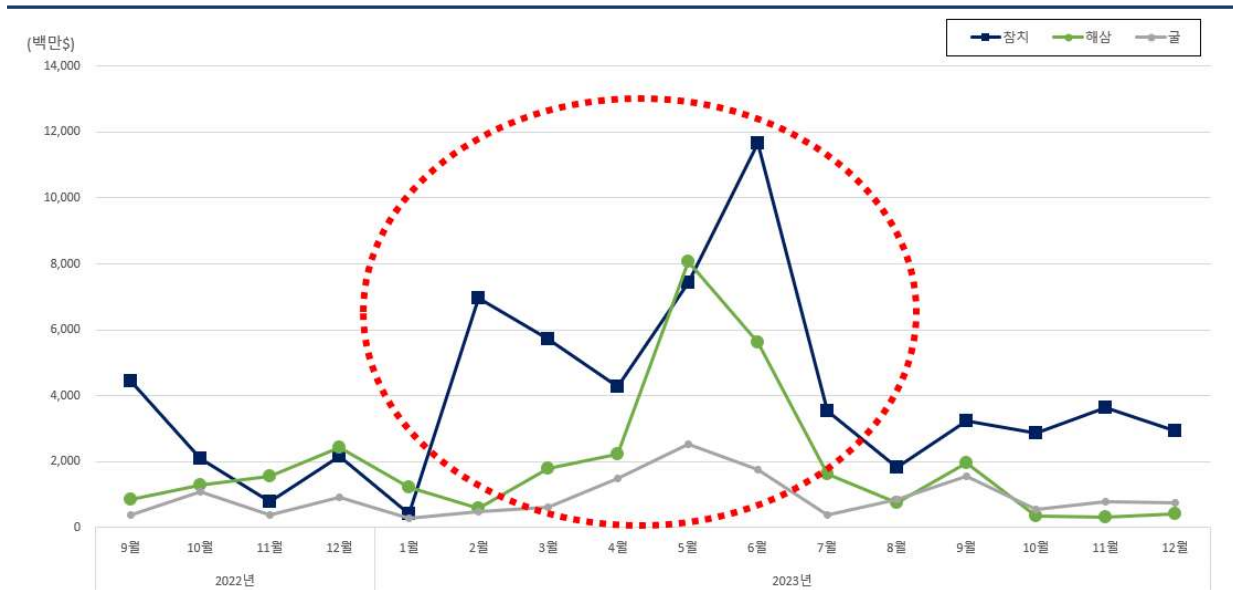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일본 對중국 수출					품목	한국 對중국 수출				
	2020	2021	2022	평균	비중		2020	2021	2022	평균	비중
전체	290	528	638	485	100.0	전체	442	727	902	690	100.0
가리비	10	27	365	134	27.6	가리비	-	-	-	-	-
해삼	10	18	74	34	7.0	해삼	14	30	31	25	3.6
참치	9	21	25	18	3.8	참치	40	29	32	33	4.8
성게	0.4	6	9	5	1.1	성게	-	0.002	-	-	-
김	8	4	3	5	1.0	김	101	139	96	112	16.3
고등어	3	4	5	4	0.8	고등어	8	3	2	4	0.6
굴	2	2	2	2	0.3	굴	3	3	1	2	0.4
전복	0.1	0.1	0.4	0.2	0.04	전복	0.04	0.02	0.18	0.08	0.02
기타	247	446	153	282	58.1	기타	277	523	739	513	74.4

주: 일본 對중국 수출 품목은 우리나라와 경합 예상 가능 품목을 중심으로 정리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6.2.2.), Global Trade Atlas 원자료(검색일: 2025.12.16.) KMI 재가공

〈그림 3〉 한국의 對중국 참치·굴·해삼 수출 변화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원자료(검색일: 2026.2.2.) KMI 재가공

■ 한국, 일본산 방어를 중심으로 수입 증가

- 금수 조치('23.9.) 시행 전후(이전: '21.7.~'23.8., 이후: '23.9.~'24.8.)을 비교하면,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액은 191백만 달러에서 163백만 달러로 14.7% 감소함. 수입 물량은 36천 톤에서 37천 톤으로 3.1% 증가하였으나, 수입 단가가 5.4달러에서 4.4달러로 17.2% 하락하면서 전체 수입 금액 감소로 이어짐
- 품목별로는 상반된 흐름이 확인됨. 특히 일본산 방어는 수입 물량이 2천 톤에서 4천 톤으로 87.9% 증가하였으며, 수입 금액도 30백만 달러에서 37백만 달러로 22.5% 증가함. 반면 수입 단가는 kg당 12.6달러에서 8.2달러로 34.8% 하락함
- 이는 對중국 수출 제한으로 일부 물량이 국내 시장으로 전환된 가운데, 가격 하락이 수요 확대와 결합된 결과로 해석됨. 또한 같은 기간 국내 방어 생산량이 감소('23년 2.6만 톤 → '24년 2.4만 톤)한 상황에서 소비 수요가 유지되면서 수입 확대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됨⁹⁾

9) 한국경제, "일본산 더 좋아" 한국인 '방어 사랑'에... 발각 뒤집힌 '일물가'(2025.12.2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205940>(검색일: 2026.02.05)

〈표 8〉 한국 對일본 수산물 수입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조치 전('22.09~'23.08)		조치 후('23.09~'24.08)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91	100.0	163	100.0	-14.7
1 가리비조개	47	24.7	44	27.0	-6.7
2 돔	47	24.4	34	20.9	-27.0
3 방어	30	15.6	37	22.4	22.5
4 멍게	6	3.3	1	0.5	-87.8
5 조개관자	6	2.9	1	0.7	-79.9
6 참치	5	2.8	3	1.7	-50.3
7 가오리	5	2.8	4	2.7	-16.6
8 명태	5	2.6	3	2.1	-33.6
9 어묵	4	2.3	4	2.5	-7.4
10 갈치	3	1.8	1	0.3	-84.1
기타	32	16.7	32	19.3	-1.2

자료: Global Trade Atlas 원자료(검색일: 2025.12.16) KMI 재가공

〈표 9〉 한국의 對일본 수산물 수입 구조 변화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구분	수입 물량			수입 금액			수입 가격		
	조치 이전	조치 이후	증감률	조치 이전	조치 이후	증감률	조치 이전	조치 이후	증감률
전체	36	37	3.1	191	163	-14.7	5.4	4.4	-17.2
가리비	11	12	8.4	47	44	-6.7	4.4	3.8	-13.9
돔	6	4	-20.4	47	34	-27.0	8.4	7.7	-8.2
방어	2	4	87.9	30	37	22.5	12.6	8.2	-34.8

주: 금수 조치('23.9.) 시행 전후를 기점으로 수출 물량 및 금액을 비교함(이전 : '22. 9.~'23. 8, 이후 : '23. 9. ~'24.8.)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원자료(검색일: 2026.2.2.) KMI 재가공

■ 금수 조치의 한·중·일 수산물 무역 파급효과

- 한국·중국·일본은 생산-가공-소비 단계가 긴밀히 연결된 수산물 교역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일본은 원료 생산 및 고부가 품목 공급국, 중국은 소비시장과 가공 거점, 한국은 소비·가공경합 수출국의 성격을 동시에 보이며 역내 공급망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
- 2023년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은 일본의 對중국 수출 급감과 함께, 일본→중국→제3국으로 이어지던 기존 가공·재수출 중심 가치사슬에 제약을 가함. 이에 따라 일본은 수출 대상국과 가공 거점의 다변화를 추진하였고, 중국은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선 조정을 진행함
- 이 과정에서 한국에는 두 가지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나타남. 첫째, 참치·해삼·굴 등 일부 품목에서 일본산 대체 수요가 발생하며 對중국 수출이 일시적으로 확대됨. 둘째, 일본의 對중국 수출 제한에 따른 일부 물량이 국내로 전환되면서 방어를 중심으로 일본산 수입 구조 변화가 나타남
- 다만 이러한 변화는 전체 교역 구조의 근본적 재편이라기보다는 정책 충격에 따른 단기적 무역 전환 효과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중국의 장기 둔화로 수입 수요 자체가 위축된 가운데, 일본 또한 공급망 재편을 통해 수출 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의 對중국 수산물 수출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됨

3. 요약 및 시사점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동북아 수산물 무역 불확실성 확대

-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는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함께 환경·정치·안보 이슈가 통상 조치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수산부문에서도 관세뿐 아니라 위생·환경 규제 등 비관세 조치가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나타남
-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 인접성과 높은 상호 의존도를 기반으로 밀접한 수산물 교역 구조를 형성해 왔으나, 2023년 금수 조치 사례에서 살펴본 듯이 외교·환경 이슈가 반복적으로 교역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됨
-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을 소비재로 수입하는 동시에 가공·중계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금수 조치 이후 일본산 수입이 급감함. 다만 일본산이 중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로, 전체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으며, 가리바·성게·해삼 등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 구조 재편이 나타남
- 반면 중국·홍콩은 일본의 제1·2위 수출 대상국으로, 수출 제한은 일본 수산업에 구조적 조정을 초래함. 일본은 수출 대상국 다변화와 가공 거점 재배치를 추진하며 중국 중심 구조에서 점진적 전환을 시도함

■ 수출 측면: 단기적 대체 수요 발생과 구조적 한계

- 중국의 금수 조치 이후 참차·해삼굴 등 일부 품목에서 일본산 대체 수요가 발생하며 한국의 對중국 수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함. 이는 특정 용도·품목에 국한된 수요 전환 효과로 확인됨
- 다만 국내 원료 공급 제약과 중국 경기 둔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해당 수출 증가는 구조적 확대 국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통상 충격 발생 시 단기적 기회는 존재하나, 공급 기반과 시장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 수출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 다만 중국의 수산물 소비는 중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2026년 1월 체결된 한·중 자연산 수산물 위생검역 약정은 우리 국내산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함. 이에 따라 향후 중국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수요 확대 가능성도 함께 주목이 필요함¹⁰⁾

10) 해양수산부, "K-수산물 중국 시장 진출 확대"(2026.1.5),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4423&bbsSeq=10&menuSeq=971> (검색일 2026.02.02)

■ 수입 측면: 일본산 수산물 유입 가능성과 가격 영향

- 일본의 對중국 수출 제한은 일부 물량의 제3국 분산으로 이어졌으며, 한국 시장에서도 품목별로 상이한 영향이 확인됨
- 일본산 방어는 조치 전후 수입 물량이 87.9% 증가하고 단가가 34.8%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수입 금액도 증가함. 이는 국내 생산 감소와 소비 수요 유지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됨
- 전체적으로는 일본산 수입 금액이 감소하였으나, 품목별로는 가격 조정과 물량 확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이한 흐름이 나타남
- 이는 주변국 통상 조치가 국내 수급과 가격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표 10〉 요약 및 시사점

구분	요약	시사점
1. 무역	- 중·일 통상 조치가 역내 공급망을 통해 한국 수산물 수출입 및 가격 구조에 영향 미칠 가능성 존재	- 중·일 의존 품목 중심으로 교역 구조 취약성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2. 수출	- 일부 품목에서 단기적 대체 수요 발생하였으나 구조적 확대에는 한계	- 대체 수요 가능 품목에 대한 생산·가공·물류 기반 점검 및 지속 가능성 검증 필요 * 특히 중국의 수산물 수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중 위생 협정 체결은 국내산 수산물 수입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3. 수입	- 방어 등 일부 품목에서 물량 증가와 수입 단가 하락 가능성 존재	- 품목별 수입 동향과 가격 변동을 반영한 수급·가격 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자료: 저자 작성